

# 강진서 전국 첫 토종벌 증식 성공

## 11군서 80여군으로 ... 명품화 길 열어 전남도·군, 질병예방 등 적극 지원 성과

강진군 대구면 용문마을 김광수(43)씨가 전국 첫 토종벌 증식에 성공해 화제다.  
김씨는 올해 11군의 토종벌을 80여군으로 증식하는데 성공했다. 서울에서 의류무역사업을 하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건강이 악화되자 지난 2005년 고향인 용문마을로

귀촌해 명품 꿀 생산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남충봉아부페병으로 많은 한봉이 죽고, 이로 인해 한봉 사육을 그만두는 농가들이 점점 늘어났다. 게다가 양봉이 한봉 벌통을 습격해 여왕벌을 죽이는 피해가 자주 발생해 한봉 농가들의 한숨이 이어졌다.

이에 강진군은 올 초 국내 꿀벌연구 권위자인 국립농업과학원 최용수 박사를 초청, 토종벌 사육농가 40여명을 대상으로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토종벌 사육 및 질병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섰다.  
또 지난해부터 토종벌 사육여건이 좋은 대구면 계율리, 용문리 지역에 '이동양봉 출입자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토종벌 보호에 나서는 한편 토종벌 봉군 구입비 등으로 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군의 지원과 김씨의 노력으로 토종벌 명품화 산업이 추진된 가운데, 올해 전국 첫 토종벌 증식에 성공한 것이다.  
김씨의 성공에는 지난 2009년 토종벌 남충봉아부페병 발생 이후 질병예방에 힘쓴 전남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의 도움도 컸다. 이들 기관은 기존 토종벌 사육방법이 가지고 있는 질병 예방 및 관리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량벌통 개발과 봉군을 조기 증식하기 위한 관리기술을 김씨에게 전수해줬다.  
지난 11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토종벌 증식에 성공한 김씨의 집에서 국립농업과학원 및 토종벌 관련 전국 농업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평가회를 열고, 토종벌 봉군의 안정적인 증식 기술의 보급에 나섰다.  
김씨는 "한봉사육농가들을 보면 재래식이 대부분인데, 현대화된 기자재 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농업기술센터나 관련 연구시설에서 토종벌 질병 연구에 힘써 한봉농가들이 질병 피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한봉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지난 11일 강진군 대구면 용문마을에서 열린 토종벌 봉군증식 기술집목 우수 농가 현장평가회에서 전국 첫 토종벌 증식에 성공한 김광수(43)씨가 봉군 사육 관리 시범을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 한전 신청사 건립 순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설 한국전력 신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본관 왼쪽에 자리한 문화시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전 신청사에는 연극과 세미 뮤지컬 공연이 가능한 1000석 규모의 대강당과 디지털 도서관, 수변공원과 연계한 야외공연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 목포 '공무원 학습동아리' 육성 박차

## 동아리별로 200만원 지원

## 연말 경진대회 실시 포상

목포시가 연구하는 공직공토를 조성하고 지식공유와 창출을 통한 업무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학습동아리' 지원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연구 동아리들이 회원 상호 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기획력을 제시하도록 해 시정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학습연구동아리는 모두 10개로, 161명의 공직자가 가입돼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각 동아리별로 1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200만원으로 2배 증액하고 매년 연말 동아리 경진대회를 실시해 우수 동아리를 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책 속에 목포시 사회 복지 공무원로 구성된 '입파워먼트 동아리(팀장 이영)'는 한국사회복지 행정연구회 주최로 전국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8회 공공 복지 정책비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외국어를 공부하는 '골드 피쉬',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발길이 머무는 사람들', 전문 프락터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손에 잡히는 파워포인트'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즐거면서 하는 자는 백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공무원 동아리는 취미와 개성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즐기면서 연구활동을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된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 하천생태계 복원 토종 어류·미생물 방류

## 광양시, 붕어·잉어 치어 등... 하천 건강성 회복 운동

광양시가 서천 등 관내 8개 하천의 건강성을 되살리기 위해 토종 어류와 유용 미생물(EM)을 방류한다.  
시는 16일 "관내 하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토종어류 방류, 유용 미생물 방류, 하천변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을 위주로 한 '하천 건강성 회복 운동'을 오는 19일 옥룡면 하천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광양1사1하천운동 추진협의회 25개 회원 기업체 임직원 을 비롯해 포스코 패밀리봉사단,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해 토종어류 붕어 치어 2만8000마리, 잉어 치어 4만 마리 등 모두 6만8000여마리를 방류한다.

또 수질개선 효과에 탁월한 유용 미생물을 방류하고 유용 미생물 휴공 2000여개를 투척하는 한편 인근 하천변과 수중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 줍기에도 나선다.  
1사1하천운동추진협의회 측은 다음달 흥천골 갈대 복원 시범사업과 육곡천 EM공급시설 설치사업 등을 실시하고 최근 동천에 식재한 5만본의 감귤에서 꽃씨를 채집해 내년 봄 파종할 방침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과 수산자원을 조성함으로써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내수면의 어족 자원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시는 18일에도 지역 토산어종 개체 수를 확대 보존하기 위해 관내 8개 주요 하천과 저수지에 동자개(빠가사리) 8만8000마리를 방류할 방침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끼·열정 맘껏 펼쳐라"

## 담양 죽녹원 광장서 19일 '청소년 문화존'

담양 청소년들의 넘치는 끼를 맘껏 발산하고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청소년 문화존'이 오는 19일 담양 죽녹원 앞 분수대 광장에서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담양군이 주최하고,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과 담양군청소년운영위원회가 주관해 청소년들의 문화와 놀이, 체험 및 공연무대 등이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아나바다 장터,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과 먹을거리 등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담양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존' 행사가 오는 19일 담양 죽녹원 앞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청소년 문화존 행사 장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1부 행사에서는 체험과 놀이, 먹을거리, 참여마당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노래, 난타,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2부 행사로 2시부터 5시까지 펼쳐진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무

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동안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를 형성해 담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단체와 함께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kwangju.co.kr

# '문학관광 기행 특구' 장흥 고향작가 작품집 잇단 발간

## 고단 규방가사 '평화사시사' 정병우 소설집 '가재골' 등

문학관광 기행 특구 장흥은 그 향백의 개성을 확고히 선양하는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국문학 특구포럼'은 지역이라는 여건을 극복하고 전국 단위의 문학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소설가 이청준 기념행사는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문학 행사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와 병행해 최근 장흥 출신 작가들을 조명하는 작품집도 속속 발간되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 소고당 고단(1922~2009)의 규방가사 작품선집 '평

화사시사'와 함께 석담 정병우(1925~2010)의 유작 소설집 '가재골'을 간행된 것.  
이 두 작가의 작품집은 장흥군의 지원으로 별곡문학동인회에서 간행했다.  
별곡문학동인회는 이 작품집 간행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를 18일 오후 5시 장흥군민회관 2층에서 가질 예정이다.  
소고당 고단은 장흥을 평화리 출신으로 규방가사의 장르에 혼신의 열정을 바친 이 시대 최후의 규방가사 작가로 회자됐으며 생전에 100여편 이상의 작품을 남기었다.  
석담 정병우는 장흥군 유지면 출신으로 1950년대 현대문학에서 작품을 추천받으면서 문단에 데뷔한 바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맞춤형 현장컨설팅' 농민들에 큰 호응

## 고흥군 매달 2차례 실시

고흥군이 매달 2차례씩 농업정보 제공과 영농지도가 자주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찾아가는 '맞춤형 영농기술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맞춤형 현장컨설팅 사업은 12종의 이동식 진단 장비를 활용,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는 방법으로 농업인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자 석류 비봉사 등 군 대표 소득 작목은 물론 고추터널 재

배, 매실 과원 관리, 무화과 전지 전정 등 틈새 소득 작목 핵심기술을 농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도양을 신기마을 박영배 이장은 "마을에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영농상담과 주민간의 상호 농업정보 교류가 이어져 영농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는 등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기술지원팀의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통해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 고흥서 국제 열기구대회 열린다

## 18~20일 박지성운동장

고흥군은 16일 "2013 고흥 국제열기구 대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박지성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열기구대회 기간에는 세계 20여 국가에서 참가한 다채로운 모양과

크기의 열기구들로 매일 10시와 15시에 경기(자유비행, 계류비행)가 진행되며, 수많은 열기구가 상공으로 날아오르는 장관이 연출된다.  
또 관광객이 직접 열기구를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청소년 댄스대회, 직장인 밴드공연, 마술공연, 버블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개막일인 19일 오후 6시에는 불꽃놀이를 비롯한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열기구들의 야간 열기구쇼, 오케스트라 연주 및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나로호를 성공리에 발사함으로써 세계 11번째 우주클럽에 가입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세계 속의 당당한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열기구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 순천 중앙도서관 임시휴관

## 그림책 도서관 리모델링

## 11월 14일부터 5개월간

순천시 중앙도서관이 오는 11월 14일부터 약 5개월 정도 임시휴관에 들어간다.  
순천시는 16일 " 그동안 이용률의 감소가 가능 전환이 요구된 중앙도서관에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에게 상상력과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전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그림책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사 기간 이용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공사중인 연향도서관의 재개관 시기인 오는 11월 14일부터 내년 3월까지 임시휴관 한다.  
그림책 도서관은 본관 1층은 그림

책 인형극 상설 공연장과 그림책 자료실, 카페테리아 등으로, 2층은 그림책 원화 전시가 가능한 전시실 등으로 구성된다.  
별관 2층에는 작가의방, 그림책 전문연구실 등이 배치된다. 별관 1층은 종합자료실로 변경해 기존 도서관의 정보제공과 도서열람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순천에는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개관한 기적의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5개, 작은도서관 47개 등이 자리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